

25.05.24.(토)

즉시 배포

Tel : 02-6788-3201, 3631 / Fax : 02-6788-3629

e-mail : minjooeuljiro@gmail.com

민주당 중앙선대위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MBK 등 사모펀드 운영 가맹점주 긴급간담회 및 정책제안식

오늘(5/24) 10: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긴급간담회 및 정책제안식

MBK 등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피해구제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및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민병덕)와 함께 간담회 및 정책제안식을 진행했다. 맘스터치, BHC, 버거킹, 투썸플레이스, 설빙 등 사모펀드(PEF)가 운영 중인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협의회 대표들이 대거 참석해 실제 가맹점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와 생존권 침해사례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이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한 자리였다.

민병덕 위원장은 “믿고 시작한 브랜드가 갑자기 되었고, 어느새 싸우지 않으면 생존조차 위협받는 구조가 되었다.”며 “상생이 어려운 기업 중 상당수가 사모펀드가 인수한 브랜드다. 가맹점주는 현금창출 창구가 아니라 진짜 주인이다. 을지로위원회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김남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부위원장은 “사모펀드는 버스사업 등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인천~수원 노선처럼 현금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배당이 쉬워진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며 “프랜차이즈 역시 현금장사이며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 사모펀드가 쉽게 진출한다. 과다출점 등 공통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수물품의 가격인상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새 정부의 과제가 될 것이다. 과잉배당을 해야 하다 보니 본사가 어려워지고, 이를 이유로 가맹점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며 “공정거래위원회뿐 아니라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성연숙 총회장은 “작년 본사는 최대이익을 기록했지만, 차액가맹금은 점점 올라 15%를 넘었고, 점주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한 해였다.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만 열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며 과도한 차액가맹금과 가맹점주의 협상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BHC가맹점주협의회 진정호 회장은 “사모펀드가 인수한 본사는 원재료, 포장지 등 필수품목에 높은 마진을 붙여 가맹점에 공급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실제로 BHC의 상품매출이 전체매출의 90%를 차지하며, 유통마진을 크게 올려 본사의 영업이익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BHC의 차액가맹금, 즉 원자재 공급 마진율은 18%로, 경쟁 프랜차이즈 평균인 9%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다. 이는 곧 가맹점주 수익성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 김광부 회장은 “CJ가 운영하던 브랜드가 칼라일 그룹 계열 사모펀드로 넘어간 후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일정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으나 형식적일 뿐이다. 372억 원의 흑자를 모두 사모펀드가 가져갔고, 껌데기만 남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폐점하려면 본사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본사가 두 번이나 바뀌었음에도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 며 “가맹점주 생존권이 걸린 만큼 사모펀드 진입에 대한 일정한 장벽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 밝혔다.

설빙가맹점주협의회 김준영 회장은 “창업자가 10년 운영한 후 1년 반 전에 사모펀드에 인수되었고, 이후 협의회는 본사 입장에서 눈엣가시가 되었다.” 며 “협의회 임원 점포 인근에 가맹점을 출점하는 방식으로 보복을 가하니, 이후 아무도 협의회 임원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 고 강조했다.

가맹점주들은 사모펀드가 단기 수익만 추구하는 구조적 특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모펀드는 통상 3~5년 내에 수익을 극대화한 후 재매각(엑시트)하는 방식

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며, 이 과정에서 본사는 배당을 늘리고 가맹점 수익회수를 가속화한다. 이 부담은 결국 가맹점주에게 전가된다.

이날 가맹점주들은 ▲PEF 인수 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화 및 감독기관의 사전검토 ▲가맹본부 양도 시 가맹점주와 사전협의 의무화 ▲가맹계약의 실질적 재체결 제도화 ▲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폐지 ▲필수품목 강제, 보복성 출점 등에 대한 정기조사 및 엄격한 관리감독을 주요 정책제안으로 을지로위원회에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민병덕 위원장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높은 차액가맹금이 핵심문제”라며 “가맹점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협의회 활동에 대한 보복출점은 부당노동행위와 유사한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또한 “MBK의 홈플러스 인수 이후 알짜점포 정리 및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례를 통해 사모펀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며, “더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공정위, 금감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잘사니즘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행사 사진]

